

“취향 맞는 챗봇 골라서 쓴다” 에이닷앱 싹 뜯어고친 SKT

IT 신상 짝퉁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 선보인 인공 지능(AI) 서비스 앱 에이닷을 싹 뜯어 고쳤다. 이용자별 취향에 맞는 콘텐츠와 함께 말을 하는 챗봇을 내세워 ‘친구 같은 AI’를 구현했다. 채팅으로 구동하는 업무 도구에 가까웠던 기존 서비스와 차별을 꾀한 것이다.

◆콘텐츠로 대문 장식한 AI 서비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에이닷을 새로 단장했다. 기존 앱은 메인 화면에 캐릭터가 나타나 고객과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개편된 앱의 장점은 콘텐츠에 있다. 음악 추천과 영어 학습, 뉴스, 식당 추천, 운세,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한 화면에 담겨 있다. 콘텐츠가 다양하다 보니 이 중 하나 정도는 이용자 맘에 들기 마련이다. 결만 바뀐 AI 앱보다 콘텐츠 플랫폼에 가깝다.

업계에선 에이닷의 뒤는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기존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내세우기보다 AI 챗봇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장착한 Bing이나 구글의 바드는 채팅에 집중하는 쪽으로 화면을 단순화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가 쉽고 친근하게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전면배치해 접근성 높여 채팅 집중한 MS·구글과 차별화

지식 담당 ‘챗T’ 가상인격 챗봇 상황 따라 골라쓰는 재미 더해

에이닷은 챗봇 서비스도 세 가지 내놨다. 취향에 맞는 챗봇을 쓰면 된다. 지식을 담당하는 챗봇은 챗T다. SK텔레콤의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모델이 결합한 챗봇이다. 모기에 덜 물리는 법과 같은 생활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이스커피를 주제로 랩 가사를 만들어줘”와 같은

요청에 가사를 써주는 식이다. 또 다른 챗봇 서비스인 큐피드를 이용하면 채팅창이 아니라 게시글 형태로 AI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사진 속 그림자도 5초면 삭제 마음을 채워 주는 AI 챗봇도 있다. 에이닷프렌즈는 웹툰 그림체로 된 가상의 인격체 세 명과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다. 이들 세 명은 열정적인 취업준비생, 직설적이고 당돌한 친구, 다정다감한 친구라는 각각의 콘셉트에 맞춰 이용자와 대화를 나눈다. 음성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서 친구와 통화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에이닷은 AI를 이용한 사진 편집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사진 촬영에 익숙한 젊은 층이 친숙하게 느낄 만한 기능이다. 에이닷을 이용하면 사진에서 없애고 싶은 피사체를 간편하게 지울 수 있다. 사람은 물론 그림자도 5초면 삭제된다. 피사체의 수평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진 속 표정도 바꿀 수 있다. 보정 결과물은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실제 찍은 사진으로 보일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다른 앱이라면 유료로 쓸만한 기능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챗T는 종종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다. 이탈리아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김만재 선수가 프랑스에서 뛰고 있다고 잘못 말하는 식이다. 이주현 기자

GPS 안 닿는 지하주차장도 내비게이션 터진다

지상 도로에서만 작동하던 내비게이션의 영역이 지하주차장으로 확대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비게이션 앱 최초로 주차장 실내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차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하 공간을 안내하는 앱을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내비게이션 앱인 카카오내비를 통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차장의 실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비게이션 앱이 주차장 실내에서 구동되는 첫 사례다.

내비게이션 앱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GPS의 신호는 벽을 뚫고 지나가기 어렵다. 지하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 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GPS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

카카오, 주차장 실내서 첫 구동 GPS 대신할 신호 발신기 설치 “다양한 지하공간 안내할 것”

문이다. 카카오내비는 실내 위치 측정을 위해 주차장에 신호 발신기(비컨)를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실내에서 미리 위치별 비컨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게 첫 단계다. 이렇게 확인한 위치별 신호 세기와 내비게이션 앱 이용자의 신호 세기를 비교하면 실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티제이랩스와 손잡고 코엑스 주차장에 실내지도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내비

앱에 있는 실험실 메뉴에서 ‘주차장 실내지도’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 주차와 관련한 편의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주차장 각층의 만차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주차 위치를 앱에 자동 저장한 뒤 출차 시 이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코엑스 주차장을 시작으로 다른 주차장과 지하공간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성우 카카오모빌리티 기술기획리더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차량 탑승에서 주차에 이르는 이용자의 전 여정에서 끊임 없는 길 안내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중 모빌리티 서비스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계속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TV로 공과금 납부” SKB-하나 銀 맞손

SK브로드밴드는 하나은행과 함께 장년층 고객을 위해 B tv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발표했다. TV 화면을 활용해 리모컨으로 재산세, 주민세, 전기요금 등을 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인공지능이 잘 팔릴 제품 미리 선별”

▶ 으뜸 중기

임팩티브에이아이 ‘예측 솔루션’

“결과를 내다보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전문 스타트업 임팩티브에이아이의 정두희 대표(사진)는 “AI를 도입한 기업은 많지만 뚜렷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극소수”라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은 대부분 뚜렷을 열어본 후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행보를 검토하는 ‘사후적’ 수습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임팩티브에이아이는 AI를 통해 사후적 수습 방식을 ‘사전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예측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임팩티브에이아이의 제품 출시부터 생산, 판매 등 전 구간을 예측 프로세스로 전환하도록 돕는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AI 솔루션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서비스형 모델)로 제공한다. 한동대 ICT창업학부 교수인 정 대표가 2021년 7월 설립했다. 서울대 하버드대 피츠버그대 KAIST 출신 등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됐다. 정 대표는 “머신러닝을 통해 출시 전 성공 여부를 예측해 ‘잘 팔릴’ 제품을 전략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게 신제품 개발의 핵심”이라며 “판매량을 예측해 판매와 재고의 최적화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중의계약 등이 고객사다. 그는 “글로벌 톱 수준의 고급 수요예측 모델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근 기자

네이버, 순위조작 의혹 해소 ‘뉴스 선별’ 알고리즘 공개

네이버는 인공지능(AI) ‘네이버 뉴스’를 어떻게 선별해 노출하는지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일명 ‘네이버 뉴스 AI 알고리즘 안내 페이지’다.

뉴스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내하며 사용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네이버가 뉴스 검색 배치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 페이지는 알고리즘 도입 배경, 에어스(AiRS-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AI 콘텐츠 추천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 팩터(요인) 등으로 구성됐다. 네이버는 “국내의 포털사이트 중 가장 투명하고 상세한 수준으로 알고리즘 피처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지은 기자

AI 덕에 똑똑해진 로봇 ... 돌발상황 학습은 숙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덕에 로봇이 똑똑해졌어요. 이제 복잡한 작업도 척척 수행합니다.”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초거대 AI와 로봇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를 주제로 지난 5일 열린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웨비나는 한경 AI경제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보급이 로봇공학 발전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 로봇의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과

‘초거대AI와 로봇 융합’ 웨비나 “코딩 없이 일상언어로 명령 내려 배터리 용량·내구성 개선 필요”

거엔 코딩 작업을 통해 로봇에 행동을 지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상 언어로 로봇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로봇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초점이 이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극복해야 할 과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AI 거대언어모델(LLM)은 인터넷상 정보를 통해 학습하지만,

로봇은 현실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인간과 소통하는 존재”라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길 ETRI 지능정보연구본부장은 기계공학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과 교감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선 AI 기술뿐 아니라 로봇이 사람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모터 구동 기술 등 기계공학 기술도 함께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제민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도 “배터리 용량, 내구성 등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주현 기자

1등 경제방송 한국경제TV가 내 손 안에

모바일 시대 세상의 모든 경제 정보를 가장 쉽게 만나는 방법

같이있는 분석은 유튜브 채널 실시간 뉴스는 네이버 모바일

“디지털” 한국경제TV를 구독하세요.

www.wowtv.co.kr

“디지털” 한국경제TV 구독 방법

YouTube 구독 방법: 유튜브 접속 ▶ 한국경제TV 검색 ▶ 구독 클릭!

NAVER 구독 방법: 모바일 구독 방법

네이버 모바일 실행 ▶ 뉴스채널 배너 ▶ 한국경제TV + 구독 클릭!

한국경제TV